

사진은 어떻게 진실을 증언하는가

- 언론사진의 목격자역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김상덕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5.18 역사와 진실, 그리고 기억의 투쟁
 - 1. 1980년 오월 광주를 기억하다
 - 2. 5.18을 둘러싼 기억의 투쟁 그리고 사진

- III. 사진과 미디어 목격
 - 1. 미디어 목격(media witnessing)의 개념과 '목격자역할'
 - 2. 언론사진과 목격자역할의 관계
 - 3. 진실성과 언론인의 목격자역할

- IV. 사례 연구: 사진이 증언하는 오월 광주
 - 1. 당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
 - 2. 나경택이 사진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V. 순교적 증인, 삶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04>

• ABSTRACT •

How Photography Witnesses Truth:
A Study of Christian Ethics on Photojournalism and Witness

Kim, Sangduk (Adjunct Prof. Myongji Univ.)

Photography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captures a moment in the past and freezes it forever. It plays a crucial role in revealing a truth of an event, along with its value as historical data. In the context of violent conflict such as the May 18, truth-seeking was most significant. In the process, photographic records played a critical role in witnessing the truth of the May 18. However, some photographs such as the images of militia were often used to distort the truth, insisting the May 18 as a riot. This is because a photograph cannot capture the overall context of an event and reproduce only fragmented time and space. How is “the truth” found among the truths claimed in many branches? How does a photograph reveal “the truth” among fragmented pieces of truth?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witness,” mainly drawing upon the concept of “bearing witness” and journalistic vocation in seeking truth. This argument is also theologically significant because it can be reverted to the question of “How can Christianity reveal the truth among the truths spoken by various religions in our plural society?” Within the stated contex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hotography and truth through the concept of “witness” and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testimony of the church in digital media society.

Key words: Photojournalism, Media Witness, Truth, Public Theology,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 들어가는 말

사진이 갖는 힘은 과거에 한 순간을 그대로 포착하여 그 순간을 영원히 유지하는데 있다. 이는 기록사진이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사진이 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파편적인 시간과 공간만을 재현하기 때문에 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담아낼 수는 없다. 광주항쟁과 같은 갈등의 역사에서 진실규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초기 5.18 유가족 및 시민단체들은 광주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록은 진실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기록들과 사진자료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에 이른다.¹⁾ 하지만 일부 사진은 광주 시민들이 조직한 시민군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5.18’을 폭동이나 정치공작으로 왜곡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러 갈래로 주장되는 진실들 가운데 “진실”(the truth)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사진은 파편화된 진실의 조각들 중에서 어떻게 “진실”을 드러내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언론인의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 개념을 중심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증언’(witness)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 종교가 말하는 여러 진리들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도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목격자역할” 개념을 통하여 사진과 진실의 관계를 살피고 이를 통하여 디지털 미디어 사회 속 교회의 증언의 의미에 대하여 공공신

1) www.heritage.unesco.or.kr/1980-인권기록유산-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학적 관점에서 논하는 것이다.

사진과 진실, 목격자역할의 개념을 살피기에 앞서, 5.18 광주항쟁의 역사적 맥락과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5.18 역사와 진실, 그리고 기억의 투쟁

1. 1980년 오월 광주를 기억하다

한국 역사 속 1980년 5월의 광주는 끔찍한 폭력과 갈등의 기억 중 하나이다. 폭력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²⁾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5.18을 기억한다는 것은 먼저 진실을 밝히는 것과 관련한다. 진실이 있는 후에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폭력과 갈등의 기억은 쉽게 왜곡되거나 오용되곤 한다. 따라서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의 증언(testimony)에 기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언론사진의 역할이다. 사진을 포함한 5.18 관련 자료들은 유네스코 기억 유산에 등재가 되었다. 수많은 사진들 중에 어떤 사진들은 진실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 픽자가 살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사진은 어떤 측면에서 역사적 자료이자 진실을 드러내는 증언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5.18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5·18은 독재정권의 퇴진과 대한민국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들을

2) 예를 들어, 프티모 레비(Primo Levi)나 엘리 위젤(Elie Wiesel)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인류의 철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기독교 신학자로서 기억의 문제를 용서와 화해와 연관짓기도 한다.

폭도로 둔갑시킨 억울한 누명의 기억이고,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목 하에 공수대원들을 과견하여 이뤄진 과잉무력진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집회 참여여부 및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 폭행과 살상을 가했던 학살이었으며, 광주라는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한 지역차별주의이자 인종청소였고, 5·16 쿠데타로 생긴 권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포정치”이자 정치공작이었다.³⁾ 그 결과, 5월 18-27일 열흘간 피해자 규모는 154명이 죽고, 74명이 행방불명 되었고, 사망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총 4,141명에 달하였다.⁴⁾

5·18을 기억할 때 계엄군의 폭력성이나 그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5·18의 또 다른 평가는 폭력과 독재에 맞서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저항정신과 공동체정신에 맞춰져야 한다. 광주항쟁의 진정한 뿌리는 12.12 군사정변에 따른 민주화 요구 시위의 맥락에서 발견된다. 5월 10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유신잔당 퇴진’을 외치는 민주화 요구시위가 이어졌다. 당시 시위는 5월 15일 ‘서울의 봄’에서 절정을 이뤘는데, 이에 하루 앞서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족·민주화대성회거리시위를 하였다. 이날 시위에는 학생은 물론 교수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금남로를 걸었으며 전남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날 집회는 저녁까지 이어져 햇볕평화집회로 마쳤다. 당시 사진들을 보면 이날

3) 5.18의 사회과학적 논의와 관련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Shin Gi-Wook & Hwang Kyung-moon, ed.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3); Choi Jungwoon,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Paramus, NJ: Homa & Sekey Books, 2005);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과주: 오월의봄, 2012).

4) The May 18 Foundation,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Gwangju, South Korea: The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2007). 61.

집회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5월 18일의 집회는 4일 전의 민주화 요구시위의 연결선상에서 이뤄졌다. 대략 200여명의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였다. 지난 번과 같이 전남대학교에서 출발하여 금남로를 거쳐 도청 앞에서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이날은 초반부터 경찰들과 대치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주최측은 시위를 계속하기로 하고 도청 앞 분수대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시위현장에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학살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금남로 2가 충장로 입구에 투입된 7공수여단 35대대 2백여명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충격에 빠졌다. 공수대원들은 광주은행 본점, 가톨릭센터 앞을 지나 동구청과 관광호텔 앞으로 가면서 운행 중에 멈춰 세운 버스의 승객이나 행인 가운데서 젊은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겨 구타하고 머리를 땅에 처박게 하였다. 시위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서너명씩 달려들어 곤봉으로 때고 군홧발로 아무데나 차고 짓밟았다. 공수부대는 마치 ‘살인면허’를 받은 것처럼 잔인했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 한명이 막다른 골목까지 달아나다 공수대원에게 붙잡혔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짹짹 빌었다. 대문 앞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그 젊은이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면서 봐달라고 사정했다. 공수대원들은 “비켜, 이 새끼!” 하면서 그 노인을 곤봉으로 내리쳤다. 노인은 피를 흘리며 맥없이 고꾸라졌다. 쫓기던 학생이 돌을 집어 들자 공수대원은 가차 없이 곤봉으로 후려쳤다. 그리고 축 치진 청년의 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길거리로 나갔다.⁵⁾

5) 황석영 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음 (파주:

이 짧은 증언만으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 기록들은 적어도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광주시민들에게 폭행을 가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았으며 여자나 노인,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 이날의 폭력진압은 예고된 바도 없었을 뿐더러, 투입된 군인들은 절제를 잃은 듯 그곳에 있었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 공격을 가했다.

이튿날인 5월 19일이 되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전날과 달리, 대학생과 더불어 수천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당시 군기록에 의하면, 19일 오전 11시에 금남로에 모인 시민의 수는 대략 3천명에서 4천명 사이에 이르렀다.⁶⁾ 집회에 참가한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전날 과잉진압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집회 참가자수가 늘어난 만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의 수도 늘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부터 군인들은 총과 총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계엄군의 무차별적 학살에 저항하기 위해 그들은 시민군을 조직했다. 목적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광주인구가 80만명이었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 3개여단 최정예 공수부대원 8천여명이 투입되었다. 진압이 아니라 학살이 목적이었다고 봐야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그들이 총을 든 이유를 폭력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그것은 불의한 억압에 맞서 싸운 민중항쟁으로 보아야 옳다.⁷⁾ 계엄군은 광주를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광주는 스스로 돕고 연대하였다. 시민군과 더불어 자치조직을 만들었고 질서를 유지했고 의료인들은 자발적으로 병자들을 치료했으

창비, 2017), 72-73.

6) 김영택, 『5.18 광주: 광주항쟁, 원인과 진행과정』 (서울: 역사공간, 2010), 287.

7) 광주시민들의 무력저항과 시민군 조직의 정당성에 관한 글은 이동윤 & 박준식, "민주화 과정에서 저항폭력의 정당성", 『민주주의와 인권』 8(2008)을 참조하라.

며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에게 음식을 공급했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최정운은 이를 가리켜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된 “절대공동체”(absolute community)의 모델로 평가하였다.⁸⁾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광주항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 5.18을 둘러싼 기억의 투쟁 그리고 사진

5·18의 정식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혹은 “민중항쟁”이다. 이 명칭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과 광주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오랜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 강만길은 5·18 명칭의 변화를 한국 역사의 변천에 따른 역사적 평가와 해석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⁹⁾ 오늘날에도 여전히 5·18 광주항쟁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악의적인 왜곡을 시도하기도 한다.¹⁰⁾ 공식명칭의 정리과정을 역사적 평가라고 한다면, 5·18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기억도 존재한다. 주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5·18을 배우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진다. 어떤 사진을 보느냐는 어떤 기억을 갖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특별히 미디어 속 사진 이미지는 특정한 집단적, 문화적, 혹은 대중적 기억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¹¹⁾ 이 글에서

8)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과주: 오월의 봄, 2012 [1999]) 참조.

9) 강만길, 『통일운동 시대의 역사인식』 (과주: 서해문집, 2008), 40-56.

10) 예를 들어,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이 대표적이다.

11) 집단적 기억(Maurice Halbwachs), 문화적 기억(Jan & Aleida Assmann), 대중기억(Michel Foucault) 등의 개념은 사진이 기억의 형성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중요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Lewis A. Coser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Aleida Assmann, *Cultural Memory and Western*

는 광주항쟁의 초기 단계 속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사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光州)의 지명은 ‘빛의 고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의 광주에는 빛은 사라지고 핏빛 가득한 어둠만이 남았다.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런 살상을 감행했을까? 자국민을 지켜야할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잔인한 도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정운은 이를 두고 “공포정치”의 전략으로 해석한다(최정운 2006: 103-113). 다시 말해, 전두환과 그 추종세력은 정치적 통제력을 갖기 위해 적을 만들어 폭력을 행하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광주의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겁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왜 광주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두환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를 악용했다는 데 뜻을 모은다.¹²⁾(신기욱 & 황경문 2003; 최정운 2006).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948년 이후로 호남/전라지역은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야당의 근거지 역할을 해왔다.¹³⁾ 반면, 이 지역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았다. 윌리엄 글레이스틴(William Gleysteen Jr.) 전 주한미대사는 광주항쟁의 일차 원인을 호남 지역의 차별에서 찾는다:

5월 17일 김대중을 구속하고 그에게 학생선동의 죄를 씌운 것은 군사적 결정이었다. [...] 전라지역의 역사적 원한은 학생운동가들의 완강한 태도를

Civilization: Functions, Media, Archiv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2) See Shin Gi-wook & Hwang Kyungmoon, *The Contentious Kwangju*, Ch. 3 & 8.

13) 예를 들어, 이승만은 자유당 창당을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했고, 김대중도 호남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강화시키도록 작용했다.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서울로 잡아와서 말쑥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전라지역 깊은 분노를 자극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울이나 경상도에 비해 무시당하거나 이류 시민으로 여겨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그들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은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다. 따라서, 광주항쟁의 진실규명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 시민들이 정치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5·18의 근본적 진실은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 “학살”에 있다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김영택은 5.18의 본질은 “정치적 학살”이라고 주장한다.¹⁵⁾ 김영택의 주장은 그도 역시 광주 출신이며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 중 한명으로서, 5.18의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의 주장은 폭력적 갈등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담론이나 역사적 해석보다 폭력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역사이해는 상이하고 일부 극우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¹⁶⁾ 그리고 이 역사의 왜곡,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기억의 왜곡”에서 사진은 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진의 기능은 양가적이다. 이 글의 제목과는 반대로, 사진은 어떻게 진실을 왜곡시키는가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진이란 과거에 대한 영구불변한 형태로의 시각적 기록이다. 동시에 한 장의 사진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14) William H. Gleysteen Jr., “A Former U.S. Official’s Perspective on the Kwangju Uprising,” Luncheon Address, USC-UCLA Conference on Kwangju, Los Angeles: CA, April 21, 2000. (위의 책, xxiv 재인용).

15) 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16) 정근식, “한국현대사-왜곡과 진실: 5.18 광주항쟁”, 『역사비평』 35(1995); 오승용 외,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광주: 5.18 기념재단, 2012).

다 담아낼 수 없으며 파편화된 형태로 재현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광주항쟁의 순간들을 담아낸 여러 사진적 재현은 전체가 아닌 일부, 지극히 부분적인 사건과 순간의 재현에 집중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학살에 저항하기 위하여 조직한 시민군의 모습들, 그 중에서도 군용차량을 타고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들은 극우집단에 의해 5·18을 폭동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장면을 찍는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진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사진을 찍고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와 연관된다. 이 글에서 필자의 목적은 5·18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필자의 관심은 5·18과 같은 폭력적 갈등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의 중요성과 이를 돕는 사진의 역할에 대해 살피는데 있다. 이를 위해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 개념을 중심으로 언론사진과 진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사진과 미디어 목격

1. 미디어 목격(media witnessing)의 개념과 ‘목격자역할’

최근 미디어 연구에서 “목격” 혹은 “증언”(witness)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⁷⁾ 우리는 TV, 신문,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17) witness 개념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Barbie Zelizer, *Remembering to Forget: Holocaust Memory through the Camera's Ey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John Durham Peters, “Witnessing” in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23 (2001), 707-723; Kelly Oliver, “Witnessing and Testimony” in *Parallax*, vol. 10 (2004), 78-87; Paul Frosh and Amit Pinchevski, *Media Witnessing: Testimony in the Age of Mass Communication* (Basingstoke, Engl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Sue Tait, “Bearing Witness, Journalism and Moral Responsibility” in *Media, Culture & Society*, vol.33 (2011), 1220-1235; Amy

미디어를 통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목격한다. 이를 ‘미디어목격’(media witnessing)이라고 한다. 폴 프로쉬(Paul Frosh)는 미디어 목격을 가리켜 “미디어 안에서, 미디어에 의해, 미디어를 통하여 이뤄지는 목격 행위로서 먼 거리의 타인들에 대한 경험과 실재의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⁸⁾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이 아니라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경험하는 간접적 미디어목격이며, 이는 사회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 인식하는 집단적 기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담론을 형성하는 ‘공공의 장’(public sphere)의 기능을 수행한다.

미디어 목격에는 다시 수동적 개념인 단순 목격(eye-witnessing)과 적극적 개념인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로 나뉜다. 존 더럼 피터스(John Durham Peters)는 “eye-witnessing”이란 감각적인 행위로서 주로 눈과 귀로 사건을 인지하는 행위인 반면, “bearing witness”은 목격한 사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개인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담론적인 행동으로 설명한다.¹⁹⁾ 따라서, 목격자역할이란 사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언론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에 기반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가치판단이 개입한다.

2. 언론사진과 목격자역할의 관계

언론사진의 경우, 사진적 재현을 객관적 혹은 사실적 묘사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목격자역할로

Richards & Jolyon Mitchell, “Journalists as Witnesses to Violence and Suffering”, in *The Handbook of Global Communication and Media Ethics. Vol 2.*, P. Mark Fackler ed. (London, UK: Wiley-Blackwell, 2011), 752-773.

18) Frosh and Pinchevski, *Media Witnessing*, 1.

19) Peters, “Witnessing”, 708.

봐야한다. 그것은 사진기자의 시각적 증언이자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실천행위이다(Tait 2011). 사진기자의 목격자역할이란 뉴스거리를 위한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데에 있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곤 하는 기자정신과 맞닿아 있다. 목격/목격자 개념은 언론에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데, 과거에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의 현장에 직접 갈 수 없었기에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듣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먼 거리의 전쟁이나 갈등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기자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독자/청중들에게 전하는 역할, 즉 목격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진의 발명은 이러한 언론인의 목격자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 전쟁의 모습을 전달자에 서술 및 묘사에 의존하여 듣고 상상하던 방식에서, 사진은 전쟁이나 갈등의 사건을 직접 보는 것으로 바뀌 놓았다. 수잔 손택은 사진이 인류의 삶의 방식을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전쟁사진은 초기 사진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장르였다. 그것은 가볼 수 없던 미지의 세계를 직접 가지 않고서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경험이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사진의 재현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말보다 더 사실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사람의 이야기나 증언은 주관적이고 왜곡되거나 과장될 우려가 있는 반면,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다는 것에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늘날 사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 재현에 대한 초기의 환상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매체들에 비하여, 사람들은 사진을 좀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사진과 진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들 하나는 공식

적으로는 최초의 전쟁사진작가로 알려진 로저 펜튼(Roger Fenton)의 사진, *Valley of the Death of Shadow of Death* (1855) 일 것이다. 크림이란 전쟁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황량한 골짜기와 덩그러니 놓여진 포탄들의 이미지가 마치 해골처럼 보여 전쟁 후의 처참하고 삭막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당시 이 사진은 전쟁터의 모습을 눈으로 처음 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애초 계곡에는 없던 포탄들을 가져와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하여 연출된 장면이다.

또 하나의 예는, 1945년 조 로젠탈이 이오지마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오지마 섬을 탈환하고 해병대 군인들이 미국기를 쏘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워싱턴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이 사진을 본 따서 만든 동상이 있다. 그런데 이 사진의 비밀이 있는데, 이미 잘 알려졌지만, 로젠탈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국기가 세워진 후였다.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하던 중 정부 관계자는 로젠탈에게 재촬영을 제안을 한다. 이유는 미국 언론에 보내기에 깃발크기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렇게 더 큰 국기를 가져온 병사들은 “중요한 순간”을 다시 연출해야 했다. 그렇게 탄생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과 동상의 이미지이다.

마지막으로, 1942년 사진으로는 처음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밀턴 브룩스(Milton Brooks)의 사진 *Ford Strikers Riot* (1941)을 들 수 있다. 디트로이트 뉴스의 사진기자였던 그는 포드 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자연합을 만들어 시위를 하던 현장에 잠입하였다. 당시 다른 사진기자들은 정문 피켓라인에 위치했던 반면, 브룩스는 카메라를 숨기고 군중들 틈에 시위 현장 내부로 진입에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노동조합원이 한 사람을 폭행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이 사진은 디트로이트 신문을

통해 “포드 파업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실리며 미국 최대의 노동쟁의 사건을 다룬 사진기자가 되었다.

그의 사진은 소위 “뉴스거리”(newsworthy)의 측면에서는 특종이었을지 몰라도, 당시 포드사에서 감행한 노동자해고조치와 이에 반하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고용된 “용역”(strikebreaker)들의 존재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²⁰⁾ 더구나 브룩스의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6명의 노조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려는 장면을 담고 있기에 신문 독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날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사건의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사진이다.

3. 진실성과 언론인의 목격자역할

언론 미디어 현장에서 “진실성”(truthfulness)은 어떻게 획득하는가? 객관성과 진실성은 다른 개념이다. 언론이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학 속에서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보도한다. 언론은 사실(fact)에 기반한 공정성(fairness)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거리의 갈등을 보도할 때 사실과 공정성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소위 전쟁 저널리즘은 특정한 국가적, 이념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갈등을 보도하기 때문에 거기엔 일종의 이분법적 구분, 예를 들어 선과 악, 아군과 적군, 가해자와 피해자, 우리와 그들 등으로 나누기 마련이다. 사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은 더 확실하게 작용된다. 사건의 연속선 상에서 어떤 순간을 포착할 것인지는 결국 사진기자의 몫이다.

20) Carol Quirke, *Eyes on Labor: News Photography and America's Working Clas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7-18; Heinz-Dietrich Fischer, *Key Images of American Life: Pulitzer Prize Winning Pictures*, Pulitzer Panorama No. 9 (Münster: LIT Verlag, 2015), 62-63.

1) 사진기자의 소명으로서 목격자역할

언론사진의 목격자역할은 폭력적 갈등의 현장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기자가 목격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특별히 목격자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자의 기자정신이다. 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는가? 사진기자에게 있어서 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 현장에 접근하고 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기자로서의 당연한 일로 여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전선 중군기자들의 대부분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기자로서의 소명으로 응답했다.²¹⁾

이 소명을 수행하는 대가는 적지 않다. 매해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갈등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JP)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4-2016년 동안 각각 61명, 72명, 48명의 기자들이 갈등현장에서 생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며 현장을 지키는 이유는 투철한 기자정신이 밑바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이는 먼 거리의 대중들은 현장의 소식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대중들을 대신하여 눈과 귀의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폭력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준다 (Richards & Mitchell, 752-773).

언론의 “목격자역할”에 대한 비판의 여지도 존재한다. 언론의 보도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언론인이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할 때 자칫 특정 대상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21) Amy Richards and Jolyon Mitchell, “Journalists as Witness to Violence and Suffering,” in *The Handbook of Global Communication and Media Ethics*, ed. Robert S. Fortner and P. Mark Fackler (Malden, MA and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2011). 754. For details of the interviews, see Howard Tumber and Frank Webster, *Journalists under Fire: Information War and Journalistic Practices* (Lond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2006).

“애착관계의 언론” (journalism of attachment)이라고 부른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은 가능한 보도 대상과 현장으로부터 분리 (detachment)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이 특정한 관점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 국가주의와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특별히, 갈등현장에 파견된 특파원과 공식 종군기자들, 일명 ‘동침 기자’들은 독립기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도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²²⁾

갈등보도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사이의 긴장은 항상 존재해 왔으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성과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일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기인하며 모든 사안을 정치적 이념적인 관점으로 구분하려는 관행에서 발생한 것이다(Richards & Mitchell, 766).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기자가 현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면 바른 도덕적 판단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독립기자는 상대적으로 현장접근과 정보획득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반면, 현지 조력자의 정보에 의존하는 일명 ‘루프탑 저널리즘’은 조력자의 의견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언론인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자 스스로가 사건과 현장에 있어야 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으로 들어가야 진실이 보인다. 현장에 대한 내재화된 경험이 없이는 제대로 된 판단/관점을 유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22) Martin Bell, “The Journalism of Attachment,” in *Media Ethics*, ed. M. Kieran (London: Routledge, 1998).

2) 사진기자의 ‘결정적 순간’

사진기자 또한 마찬가지로 일 뿐 아니라 그 차이는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현장의 이해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사건의 표면적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 깊숙이 들어가본 사람만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1908-2004)에 따르면 ‘결정적 순간’을 아는 것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진가의 심미적 감성이 만나는 상호작용에 따라 이뤄진다.

결정적 순간(the decisive moment)이란 까르띠에-브레송이 주창한 개념으로 현대 다큐멘터리 및 예술사진 이론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이 용어와 개념은 그의 사진집 영문판 제목이 *The Decisive Moment* (1952)으로 출간되면서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²³⁾ 사진집 서문에서 까르띠에-브레송은 그의 사진에 관한 철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사진의 독특한 특징을 ‘순간성’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나에게, 사진은 동시적 자각이다. 그것은 매 초 단위로 나뉘지며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자, 동시에 어떤 표현과 구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자각이다.²⁴⁾

까르띠에-브레송은 사진의 행위를 사진가의 미적 감각과 사회적 실재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사건의 사진적 재현의 행위란 사진가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매체적 소통의 현상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진가의 예술적 감각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현되는 되는

23) Henri Cartier-Bresson, *The Decisive Moment*, (Göttingen: Steidl, 2014); 클레망 세루(Clement Cheroux), 정승원 옮김, 『앙리 까르띠에브레송: 결정적 순간의 환희』, (서울: 시공사, 2008).

24) Henri Cartier-Bresson, *The Decisive Moment*, 1-14.

것으로서 그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결정적 순간’도 놓치기 마련이다. 옥스포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전은 결정적 순간을 가리켜 “사진기자에 의해 해석되고 포착된 가장 극적인 절정의 순간”으로 설명한다.²⁵⁾ 이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인식된 사진가의 순간적 평정 (instatnt equilibrium)”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다.²⁶⁾ ‘결정적 순간’ 개념은 어느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사진가의 판단능력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기자는 사건의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장 속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시각적 재현은 진실을 드러낼 수 없으며 사진가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할 때 언론사진은 진실의 목격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언론사진이 진실의 목격자역할을 수행한 예로 나경택의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사례 연구: 사진이 증언하는 오월의 광주

사진[사진1] 중앙, 두 남성이 보인다.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을 곤봉을 들고 내리치려 하고 있다. 사진 아래에는 독특한 모양의 차량이 보인다. 일명 ‘폐퍼포그’ 혹은 “가스차”로 불리는 이 차량은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가스를 살포하는 경찰차량이다. 이상한 점은 사진 오른쪽 남성이 입고 있는 경찰복이 아니라 군복이라는 것이다. 이 군인의 제복과 헬멧은 그가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남자는 젊고 아마도

25) See on “decisive moment” in Daniel Chandler, *A Dictionary of Media and Communication*, ed. Rod Munday, 2nd edition, *Media and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6) See on “decisive moment” in Robin Lenman, *The Oxford Companion to the Photograph, Companion to the Photograp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대학생으로 보인다. 이 청년은 이미 피를 흘리고 있으며 저항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왜 이 군인은 다른 남자를 때리고 있는 것일까? 사진이 재현하는 이 상황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사진 1〉 “의무병까지도 무자비한 폭력진압에 가담하여 저항조차 하지 않는 한 남성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1980. 5. 19 / 나경택

사진은 기록사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정교하게 구성된 구도, 높은 퀄리티의 해상도, 흑백 처리된 이미지가 전문 사진가에 의해 촬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먼 거리에서 현장을 담는 방식의 사진은 당시 한국 언론사진의 특징이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 나경택은 근처 건물 옥상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다. 사건을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의도와 관객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객은 이 사진을 볼 때 마치 그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나경택은 이 사진을 통해 폭력의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진

을 보는 관객들을 같은 목격자로 초대하고 있다.

필자가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에는 이 사진이 폭력의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했을 뿐 아니라 이 사진이 광주항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사진작가의 눈을 통해서 말이다. 사진의 역할은 사건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데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사진의 목격자역할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건의 진실을 목격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을 드러내는 목격자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자의 역할이다. 진실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내는 몫은 바로 사진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광주항쟁 속 진실한 언론인의 목격자역할이 중요했다.

1. 당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

광주항쟁의 경우, 광주로 통하는 모든 통로가 통제되었고 어떤 소식이나 기사도 차단되는 상태였다. 반면 계엄사령부는 철저한 언론통제를 통해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북한 개입설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였다.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독일 ARD 방송국 카메라맨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는 당시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광주 진입에 성공, 광주에서 일어나는 학살의 진실을 독일, 프랑스 및 영미권 나라를 중심으로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²⁷⁾ 힌츠페터는 외신기자로서 광주항쟁의 현장에 들어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알리는 세계의 눈과 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억눌린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격자역할의 좋은 사

27) Jurgen Hinzpeter, “I Bow My Head,” in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 Henry Scott-Stokes and Jai-eui Lee (Armonk, N.Y.: M.E. Sharpe, 2000), 63-76.

레이다.

국내 언론의 경우 대부분의 언론들이 언론탄압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반면 일부 기자들,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한 언론인들은 계엄사령부의 언론탄압에 저항하였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 35명은 언론탄압에 저항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²⁸⁾

전남매일신문 사직기자 명단에는 나경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사진 [사진1]은 그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날 찍었던 것이다. 이 사진은 그가 목격한 광주항쟁의 진실이자 그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다. 하지만 사진은 끝내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그가 이 사진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2. 나경택이 사진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광주항쟁의 사진적 재현은 다양하다. 광주항쟁을 재현하는 다른 사진들은 공수부대에 저항하는 장면이나 학살 후 치참한 피해현장, 혹은 합동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유가족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들도 있다. 반면, 나경택의 사진은 폭력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등장인물은 단 둘이며 공수부대원은 가해자, 다른 남성은 피해자로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사진 속 공수부대원인 한 개인일 뿐 아니라 당시 공수부대원의 폭력성을

28) 나경택, 『앵글과 눈동자 1967-2007』, (서울: 사진예술사, 2007).

상징한다. 반면, 사진속 광주시민은 무저항, 비폭력성을 그려내고 있다. 그는 사진설명을 “심지어 의무병조차도 잔인한 진압작전에 참여하였고 저항조차 하지 않는 남성을 향해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사진을 통해 나경택이 말하고자 했던 강조점은 당시 계엄군의 불의함과 폭력성을 보여줌으로써 오월 광주의 진실은 바로 “정치적 학살”이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경택의 사진이 갖는 또 다른 가치는 그도 광주 시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인이자, 피해자이자, 생존자였다. 나경택과 함께, 김영복, 황종건, 김녕만, 신복진 당시 광주출신의 사진기자들은 사진을 신문에 실지 못하지만 광주 학살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고 필름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숨겨왔다. 후에 이 사진들은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기록으로 사용되었고, 2011년에는 UNESCO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²⁹⁾ 이 사진은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한 언론인의 소명이자 정치폭력의 피해자가 된 가족과 친구를 대신하는 처절한 생존자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갈등의 역사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종종 국가나 법적 제도 중심으로 기억되고 피해자의 기억은 소외되곤 한다. 반면, 나경택과 광주 출신의 사진가들의 기록은 피해자와 생존자의 증언이 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 글에서 필자는 사진이 진실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언론인의 목격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그것은 사진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일차적 메시지 이외에도, 사진기자의 기자정신, 윤리적 판단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목격자역할이 만들어낸 진실이었다. 필자는 사진기자의 목격자역

2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 참조 URL: <https://heritage.unesco.or.kr/> (2022. 2. 24 접속).

할 개념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진실을 목격하고 전하는 자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언론인의 기자정신이 의미하는 바, 진실을 전하기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과 그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간략하게나마 목격자역할의 개념이 교회와 복음증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특별히, 목격자역할을 뜻하는 증인(witness)과 순교자(martyr)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 순교적 증인, 삶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신학적으로, “증인”(witness)의 개념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초기 기독교 당시, “증인”의 개념은 “순교”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곤 했다. 순교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지만, 기독교에서 순교의 개념은 기독교의 정체성과 실천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³⁰⁾ 제임스 맥클렌던(James W. McClendon)에 따르면, 로마시대에는 순교자를 뜻하는 “martyr” 와 “witness” 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까지는 martyr 에 “박해” 혹은 “박해를 당한 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순교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가리켜 martyr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순교자(martyr)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

30) James Wm McClendon, *Witness* (Nashville, TN: Abingdon; 2000); Jolyon P. Mitchell, *Martyrdo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의미로서 여겨진 것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에게 진리, 목격, 증인, 순교는 서로 불가분의 개념이었으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줄리온 미첼(Jolyon Mitchell)은 초대 교회 당시 예수를 순교의 모델로 묘사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미첼은 신약성서에서 명사 witness 와 동사 bearing witness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계시록에 주목한다.

[계시록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된다(계 1:5). 비록 이것이 “충성된 순교자”로 번역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순교의 모본” 혹은 “순교의 창시자”로 보고 있었다고 해석한다—또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는 선교의 개척자이자 동시에 첫 죽음을 이긴 자로 묘사되고 있다.³¹⁾

오늘 날의 언어로 예수를 순교의 모델로 여긴다는 것은 자칫 자살폭탄, 테러와 성전(holy war)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첼은 ‘평화로운 순교’의 역사들도 존재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스테반은 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이다(행7:54-8:1).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스테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 유언이 용서에 관한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을 상기시키며, 기독교적 순교란 죽음, 살생이 아니라 용서와 희생적 사랑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시 말해, 순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맥클렌던은 그가 쓴 세 권의 조직신학 저서 중 마지막 책의 제목을

31) Mitchell, *Martyrdom: A Very Short Introduction*, 23.

*Witness*로 정했다. 이 책에서 맥클렌던은 순교적 증인의 개념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증인으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같이, 또한 스테반이 그랬듯이, 증인의 삶을 실천하며 용서와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맥클렌던은 초대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위협과 죽음까지도 굴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순교란 예수를 따르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자 값진 영광이었다.³²⁾

맥클렌던은 복음증거를 제자도의 핵심으로 이해했으며 구분된 삶의 방식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소위 급진적 제자도(radical discipleship)를 추구하는 재세례파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급진적 제자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더크 빌렘스(Dirk Willems)의 일화가 아닐까 한다. 네델란드에 태어나 아나뱃티스트가 되었던 그는 신앙을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지만 탈옥에 성공한다. 경비병의 추격을 피해 강을 건너 도망하던 중 자신을 쫓던 간수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해준 뒤 바로 체포된 후 곧 화형당하였다. 이 일화는 그가 믿던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이다”라고 주장한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이론은 디지털 미디어 사회 속에서 교회의 복음전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별히 사진과 진실의 관계 속 목격자역할의 개념은 미디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을 소비하는 청중들에게 언론이 어떻게 진실을 드러내는지 알려준다. 이 과정 속에서 목격자역할의 개념은 단지 수동적 개념이 아닌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적극적 개념

32) McClendon, *Witness*, 347-348.

으로서의 증언이었다. 이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어떻게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말이나 관념으로서의 수동적 증언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적극적 증언,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나라의 ‘목격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른 바 ‘급진적 제자도’(radical discipleship)로 주장되어온 그들의 목소리와 실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도’에 대한 가치와 실천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전도에 대한 논의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는 방증이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진리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빌렘스의 일화는 복음증거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함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치 수동적 목격(eye-witnessing)의 행위와 적극적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을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나경택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폭력과 갈등의 현장으로 갔으며 거기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사진으로 재현함으로써 광주항쟁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기정신과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작가의 사회적 감수성은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진리를 단순히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목격자(증인)로 부르심을 일깨워 준다.

VI. 나가는 말

광주항쟁 속 나경택은 갈등의 현장에 있었고 폭력의 결정적 순간을 목격했으며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사진과 삶을 통해 목격자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렇게 사진은 진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 이와 같이, 교회도 각 자리에서 삶으로 진리를 목격하고 증거하는 “목격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본다. 목격자역할은 비단 사진기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진들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증인으로의 부르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순교자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음도 다시금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함을 자랑하고 기뻐했던 사도 및 초대 교회의 모습은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요구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이다(빌1:12-30).

참고문헌

- 강만길. 『통일운동 시대의 역사인식』. 서울: 서해문집, 2008.
- 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서울: 역사공간, 2010.
- 김진호. 『권력과 교회』. 파주: 창비, 2018.
- 나경택. 『앵글과 눈동자 1967-2007』. 서울: 사진예술사, 2007.
- 오승용 외.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광주: 5.18 기념재단, 2012.
- 이동윤 & 박준식. “민주화과정에서 저항폭력의 정당성.” 『민주주의와 인권』 8(2008), 19-49.
- 정근식. “한국현대사-왜곡과 진실: 5.18 광주항쟁.” 『역사비평』 35(1995), 351-359.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파주: 오월의 봄, 2012 [1999].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황석영 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파주: 창비, 2017.
- Cheroux, Clement. 정승원 옮김. 『앙리 까르띠에브레송: 결정적 순간의 환희』. 서울: 시공사, 2008.
- Assmann, Aleida. *Cultural Memory and Western Civilization: Functions, Media, Archiv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Bell, Martin. “The Journalism of Attachment,” in *Media Ethics*, ed. M. Kieran. London: Routledge, 1998.
- Cartier-Bresson, Henri. *The Decisive Moment*. Göttingen: Steidl, 2014.
- Chandler, Daniel. *A Dictionary of Media and Communication*, ed. Rod Munday. 2nd Edition. Media and Communication Se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Choi, Jungwoon.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Paramus, NJ: Homa & Sekey Books, 2005.
- Estrin, James. (April 2, 2013). “Photography in the Docket, as Evidence.” in *Lens*, *New York Times*. <https://lens.blogs.nytimes.com/2013/04/02/photog->

raphy-in-the-docket-as-evidence/ (2022. 2. 20 접속).

- Fischer, Heinz-Dietrich, *Key Images of American Life: Pulitzer Prize Winning Pictures*, Pulitzer Panorama No. 9. Münster: LIT Verlag, 2015.
- Gleysteen Jr., William H. "A Former U.S. Official's Perspective on the Kwangju Uprising," Luncheon Address, USC-UCLA Conference on Kwangju. Los Angeles: CA, April 21, 2000.
- Hinzpeter, Jurgen. "I Bow My Head." in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 Henry Scott-Stokes and Jai-eui Lee. Armonk, NY: M.E. Sharpe, 2000.
-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Lewis A. Coser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Frosh, Paul and Pinchevski, Amit. *Media Witnessing: Testimony in the Age of Mass Communication*. Basingstoke, England,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09.
- Lenman, Robin. *The Oxford Companion to the Photograph*, Companion to the Photograp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McClendon, James Wm. *Witness*. Nashville, TN: Abingdon, 2000.
- The May 18 Foundation,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Gwangju, South Korea, The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2007.
- Mitchell, Jolyon. *Martyrdo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Richards, Amy and Mitchell, Jolyon. "Journalists as Witness to Violence and Suffering." in *The Handbook of Global Communication and Media Ethics*, ed. Robert S. Fortner and P. Mark Fackler. Malden, MA and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2011.
- Shin, Gi-Wook & Hwangi, Kyung-Moon. ed.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Oxford: UK,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2003.
- Tumber, Howard and Webster, Frank. *Journalists under Fire: Information War and Journalistic Practices*. Lond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2006.

Quirke, Carol. *Eyes on Labor: News Photography and America's Working Clas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www.heritage.unesco.or.kr/1980년-인권기록유산-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2022. 2. 24 접속).

논문투고일: 2022년 02월 28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17일

• 국 문 초 록 •

사진이 갖는 힘은 과거에 한 순간을 그대로 포착하여 그 순간을 영원히 유지하는 데 있다. 이는 기록사진이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항쟁과 같은 갈등의 역사에서 진실규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초기 5.18 유가족 및 시민단체들은 광주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록은 진실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모든 사진이 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파편적인 시간과 공간만을 재현하기 때문에 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담아낼 수는 없다. 일부 사진들은 광주 시민들이 조직한 시민군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5.18’을 폭동이나 정치공작으로 왜곡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러 갈래로 주장되는 진실들 가운데 “진실”(the truth)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사진은 파편화된 진실의 조각들 중에서 어떻게 “진실”을 드러내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언론인의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 개념을 중심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증언’(witness)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 종교가 말하는 여러 진리들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도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목격자역할” 개념을 통하여 사진과 진실의 관계를 살피고 이를 통하여 디지털 미디어 사회 속 교회의 증언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는 데 있다.

주제어: 사진, 진실, 미디어 목격, 5.18 민주화운동, 공공신학
